PROLOGUE : MSCHF? MSCHF !

!!!

WHY를 알면 WOW가 되는
MSCHF의 유쾌한 반란

7배나 비싼 가격에 ‘조각 판매’ 된 데미안 허스트 작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창조적인 파괴

앤디 워홀 작품일 수도 있는 1,000점의 에디션,
과연 원본만이 예술 작품의 가치인가

소금알 보다 작은 초소형 백, 8,400만원에 낙찰
사라지는 실용성, 끄떡 없는 상징성

진짜 명품백으로 만든 9,300만원짜리 슬리퍼
럭셔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다.

1분만에 완판된 사람 피 넣은 ‘사탄 신발’
1,018달러에 단 666켤레만 판매한 이유

세상을 향한 악의없는 도발
MSCHF에게 더이상 신성시될 것은 없습니다.

작품 속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MSCHF의 작품 세계
단 한 작품도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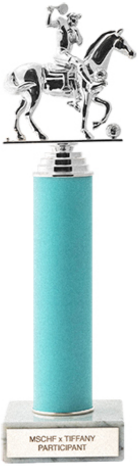
*주의 : 보이는 것보다 더 흥미로움

*본 전시는 국내 패션 브랜드 미스치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는 전시된 작품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MULTIPLAYER

놀이하듯 판을 누비다보면 알게되는 것들

MSCHF가 주최하는 게임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치 게임이나 선착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머지 않아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Ultimate Participation Trophy>

**챔피언을 위한 트로피를
클릭 한번만으로 구매하세요.**

오직 세계 최고 프로 스포츠 챔피언만이
가질 수 있었던 티파니의 수작업 트로피가
100개 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구매한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참가자로
순위가 매겨졌는데요, 항상 승자만을 위해
만들어졌던 트로피를 별다른 노력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이 작품은 공정한 경쟁과
승자들만의 특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MSCHF, Ultimate Participation Troph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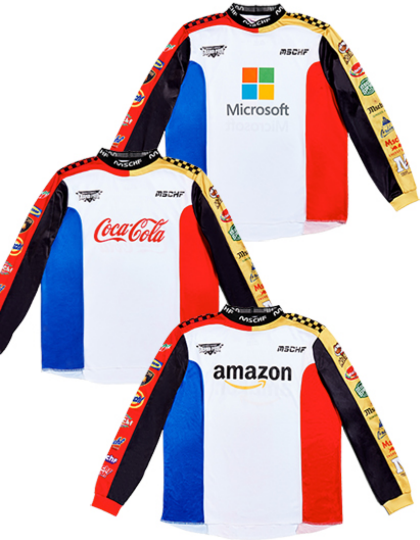
<MSCHF Wholesale>

모자를 사고 싶으시다면 1,000개를 구매해야 합니다.

MSCHF
WHOLESALE
DAELIM MUSEUM

MSCHF Wholesale에서는 제작된
1,000개의 상품을 모두 한 사람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희소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을 수 있도록 '독점권'을 판매합니다.

MSCHF, MSCHF Wholesale, 2022



<C&D Grand Prix>

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브랜드가 우승합니다.

레이싱 경기용 티셔츠에 익숙한
브랜드의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허가 없이' 말이죠.
가장 먼저 로고 사용 중지 명령을
보낼 회사를 예측해 셔츠를 구매하면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를 맞히는 우승자에게는
챔피언 모자를 증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브랜드가
우승을 거머쥐었을까요?

MSCHF, C&D Grand Prix, 2022

FRAUD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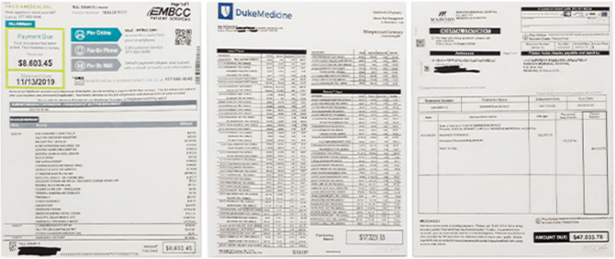
FRAUD FOR ONE

이런 유쾌한 반란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현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에 저항’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MSCHF는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통해 그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Medical Bill Art>

그림 판매 수익금으로 막대한 의료비를 상환할 수 있다?



MSCHF, Medical Bill Art, 2020

각기 다른 세 명이 실제로 받은 의료비 청구서를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 절차로 인한 빚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MSCHF는 빚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서를 그림으로 그려 예술 시장에 판매했고,
작품은 실제 청구된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되었어요.
이 작품은 미국 의료 부채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Guns 2 Swords>

총을 반납하면 더 크고 멋진 검으로 바꿔드립니다.

총기 소유가 합법인 미국에서
총기 소유자가 총을 반납하면
그 총을 녹여서 검으로 만들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다는 위안은 그대로,
타인에 대한 위협은 줄일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무기로 바꿔준거죠.
미국의 총기 강박증과
무기에 대한 심리적 집착을 활용해
효과적인 총기 반납 및 매매를
의도한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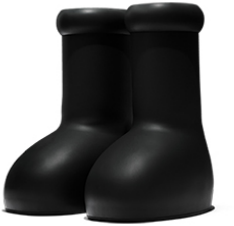
MSCHF, Guns 2 Swords, 2022

FOR EVERYTHING ELSE,THERE'S MASTERCARD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을
마스터 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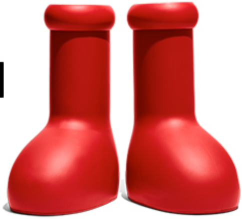
고정관념을 깨는 MSCHF의 한정판 제품들은 유명하거나 희소성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소비 심리를 꼬집습니다.

<Big Black B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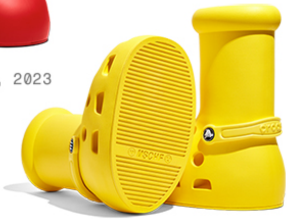
MSCHF, Big Black Boot, 2023

<Big Red Boot>



MSCHF, Big Red Boo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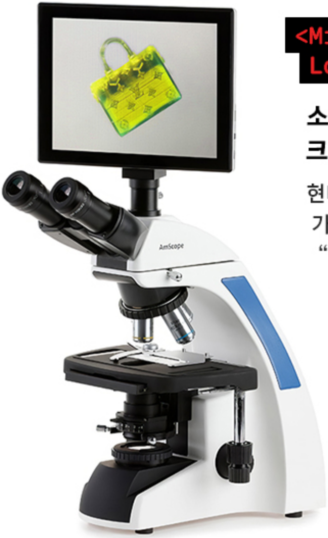
<MSCHF x Crocs Big Red Boot (Yellow)>



MSCHF x Crocs:
Big Red Boot(Yellow) 2023

전 세계를 뒤흔든 a.k.a. 아톰부츠

만화 속 캐릭터들의 부츠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 모양 그대로,
단순화된 만화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멋진 3D 세계를 위한 부츠입니다.
블랙 버전과 크록스와 협업해 구멍이 뚫린 Yellow 버전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발가락이 젖을 수 있는 샌들이에요.)
여러분도 인스타그램을 강타한 바로 그 신발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Microscopic Louis Vuitton Handbag>

소금알 보다 작은, 크기 대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방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로 657, 세로 222, 높이 7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루이비통 모노그램 로고가 입혀진 토트백 디자인의 이 가방은 자그마치 8,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한때는 기능성 물건이었던 가방이 점점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브랜드의 상징으로만 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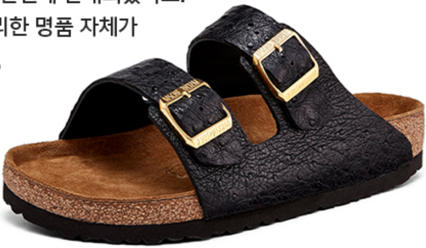
MSCHF, Microscopic Handbag,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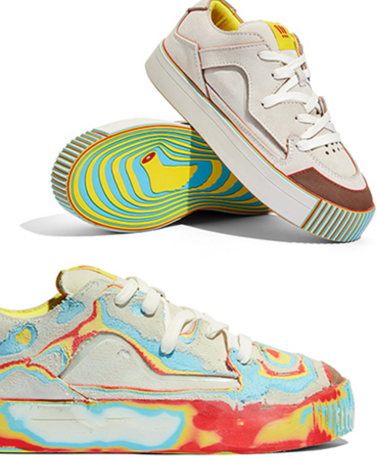
<Birkinstock>

버켄스탁, 아닙니다. ‘버킨’스탁 입니다.

에르메스의 유명한 모델인 ‘버킨백(Birkin Bag)’을 해체한 가죽으로 만든 버켄스탁 샌들로, 최대 약 9,300만원에 판매되었어요. 최상급의 재료로 만들어진 럭셔리한 명품 자체가 원자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새로운 변화를 더해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MSCHF, Birkinstock, 2021





<Gobstomper Jimmy Fallon Edition>

신발, 험하게 신으세요?
그렇다면 이 신발이 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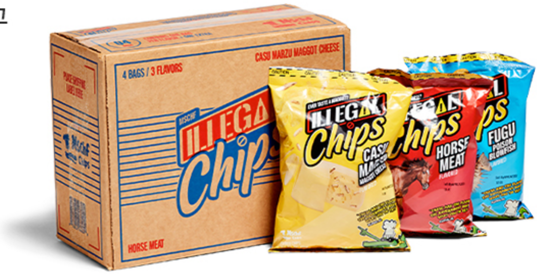
여러 색상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신발이 닳으면 닳을수록 숨어있던
다양한 색들이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 내는 운동화입니다.
신발을 신는 방식에 따라 커스텀할
수 있어요. 새로 산 신발이 닳을까
걱정한 당신, 이제 그 걱정은 넣어두고
본격적으로 신발을 닳게할 시간입니다.

MSCHF, Gobstomper Jimmy Fallon Edition, 2022

<Illegal Chips>

금지된 맛의 향연, 말, 복어, 구더기?!

말 고기, 복어, 구더기가 있는 치즈 카수마르주의 맛을 상상해보세요.
미국에서 금지된 이 식품들의 맛을 인공 향료로 100% 재현해 냈습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위험 요소로 인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어보고 싶은
욕망을 발전된 식품과학기술이
해결해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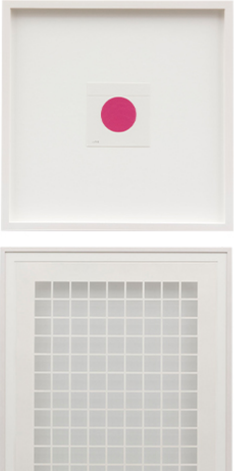


MSCHF, Illegal Chips, 2021

NOTHING IS SACRED

화제와 논란의 중심,
MSCHF에게 더 이상 신성시될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를 완전히 바꾸거나, 유명 예술 작품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MSCHF의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Severed Spots - 108 Spots, 108 Holes>

108개로 조각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데미안 허스트의 스팟 페인팅 작품 속 점들을 하나씩 잘라 108개의 점과 남은 프레임까지 각각의 작품으로 판매한 Severed Spots 시리즈입니다. 기존 작품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상품화하면 한 사람이 소유한 높은 가치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블럭을 조각 판매한 결과,

7배나 비싼 작품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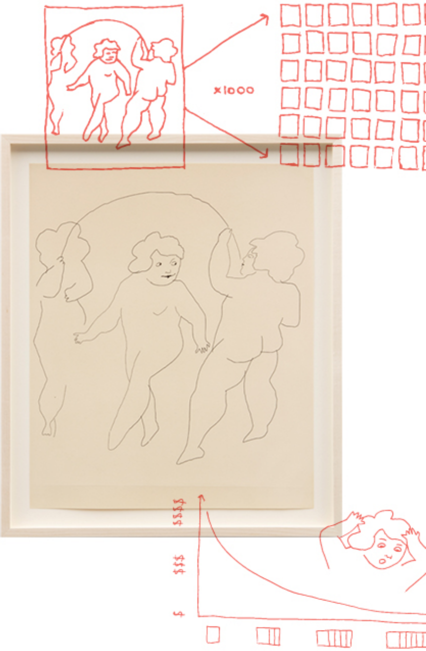
MSCHF, Severed Spots, 2022

<Museum of Forgeries>

1,000개의 앤디 워홀 (의 작품 일 수도 있는) 작품

원본임을 증명하는 문서는 그림과 함께 복사되어 진짜 원본에 대한 표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통 예술 작품은 원본의 가치가 사본보다 더 크지만, MSCHF는 쉽게 복사 가능한 작품을 제품화 하면 각각의 가치는 줄어들더라도 전체 수익은 증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원본에 대한 진위만이 예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MSCHF, Museum of Forgerie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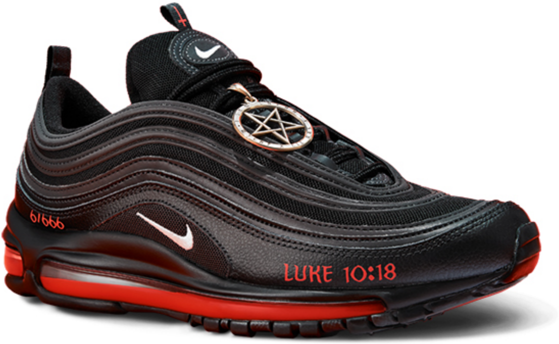


<Jesus Shoes>

‘예수’와의 콜라보레이션, 물 위를 걷는 신발

이 신발에는 실제 사제에게 축복받은 요르단 강의 성수 60cc가 들어있습니다. MSCHF는 이 작품을 ‘나이키와 가톨릭 교회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실현시킨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브랜드를 향한 숭배 현상’을 ‘종교에 대한 신앙’과 결합한 이 작품은 셀럽과의 무분별한 콜라보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MSCHF, Jesus Shoes, 2019



<Satan Shoes>

1,018달러에 단 666켤레만 판매한 이유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이 섞인 붉은 잉크가 들어있는 이 신발은 Jesus Shoes의 후속작으로 성수를 피로, 십자가를 오각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맞춰 1,018에 판매했으며, 악마의 숫자를 의미하는 666켤레만 제작되었습니다.

MSCHF, Satan Shoes, 2021

큐레이터와 MSCHF가 직접 들려주는 모바일 가이드

전시 관람 전 대림미술관 APP을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CLICK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 도슨트 투어

화-금 11시, 12시, 17시, 18시
토-일 및 공휴일 11시, 12시에
전시장 2층 미팅포인트에서 시작해요.

CLICK

전시 기간

2023. 11. 10 ~ 2024. 04. 28

운영 시간

- 화, 수, 목, 일 11:00AM – 7:00PM (입장 마감 6:00PM)
- 금, 토 11:00AM – 8:00PM (입장 마감 7:00PM)
- 월요일 휴관 (단, 3/25(월), 4/22(월) 정상운영)
- 본 전시는 서울시 종로구 대림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 관람 당일 예매하신 티켓은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재관람은 관람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